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낙하산 채용’ 우려 확산

임기제 5급 상당 오늘까지 원서 접수
사회단체, 선거 보은 인사 의혹 제기
시의회 차원 인사청문회 도입도 축구
센터 “자체규정 준수 투명 채용”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산하 (재)목포국제축구센터가 신입 사무국장 공개 채용에 나선 가운데 지역사회 일각에서 선거 공신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6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 (임기제 5급 상당) 1명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 5급 상당 이상 근무 경력자,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소지자 중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이다.

원서 접수는 17일 오후 5시까지이며 18일 서류전형과 21일 면접전형을 거쳐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6·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됐던 ‘선거 공신 보은 인사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센터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채용 비리 시 대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 조치를 명시하며 특정 인물이 사무국장으로 내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될지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과 상식, 깨끗한 인사를 하겠다던 약속은 벌써 잊었는가”라며 인사 시스템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선거철마다 별다른 역량 검증 없이 캠프 주변을 기웃거리던 인물들이 공로를 이유로 임기제나 별정직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낙하산 인사는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역 업자와의 유착 등 2차 피해를 낳아 결국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목포시의회를 향해서도 “시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보상성 인사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철저한 검증 절차를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목포국제축구센터 관계자는 “사무국장 채용은 관련 법령과 출자·출연기관 채용 지침 등 자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센터는 시설 가동률·차세 수입을 높이고 수익 사업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이 절실한 시기”라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 수행 역량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훌륭한 적임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의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결산·조례안 등 7건 의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의의회는 16일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이어진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3건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무소속 권오연 의원 (비금·도초·흑산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 가뭄 사태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주 신안군의의회 의장은 “추석을 맞아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란다”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고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나주 ‘영산포읍 환원’ 속도낸다

시의회 ‘통합읍 설치 의견 제시건’ 처리
행정공백 방지·발전 계획 등 대책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영강·영산·이장동 등 3개 동을 통합해 과거 영산포읍으로 환원하는 ‘영산포읍 설치 (환원) 신청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처리했다. 〈사진〉

그동안 동 지역을 읍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구 2만명 이상 등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농 복합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묶어 종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회는 행정구역 개편이 영산강 갯길 중심지였던 영산포의 역사성·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도심 활성화·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복지·민원 서비스 공백 방지 ▲읍 환원 연계 종합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주민 체감형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은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같은 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영암군, 불법 노점상·적치물 집중단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16일 “추석을 맞아 군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영암읍과 삼호읍,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로·인도 무단 점용 노점 행위 ▲식용위생법상 무신고 이동식 음식점 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과 차량 노점 등이다.

군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우선하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고질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물품 압류,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무단 설치된 옥수수·무화과 가판대 등을 꾸준히 정비해 지난 8월 말 기준 자진 철거 15곳, 강제 철거 10곳의 실적을 올렸다. 대신 합법적인 무화과 직판장을 설치해 상생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 내일 팡파르

향토문화회관 인도·중국 등 5개국 참여
낙화놀이·강강술래 등 야간콘텐츠 특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인간의 삶과 무형유산에 있는 대규모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인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일원에서 ‘2026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이 개최된다.

‘삶의 줄, 열두 매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전은 탄생부터 성숙, 이별과 안식에 이르기까지 삶의 순환 과정을 함께해 온 진도의 삶의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한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등 5개국이 참여해 세계 각국의 무형유산을 교류한다.

첫날인 18일 오후 6시에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식전 공연 ‘비나리’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 진도의 통과예래판을 바탕으로 한 창작 주제공연 서천꽃발이 무대에서 펼쳐진다.

또한 야간 특별 프로그램으로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진도 카니발에서는 진도북놀이와 브라질리안 타악, 스트리트 댄스가 결합된 이색 협업 무대가, 남도 소리와 타는 불꽃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낙화놀이&구름 시나위’가 이어진다.

행사 기간 동안 해외 초청공연으로 인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차우 댄스, 중국 쓰촨

성의 천극, 몽골민속예술단의 조상의 유산, 인도네시아의 사만 퍼포먼스가 무대에 오른다.

이 밖에 어린이를 위한 꾸러기 예술 놀이터, 비눗방울 버블쇼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행사도 준비됐다.

군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행사 기간 목포역과 진도향토문화회관, 솔비치 진도를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축전은 진도가 간직해 온 소중한 무형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이라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한 만큼 진도를 찾아 무형유산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군, 가을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주력

어패류 취급 업소 수족관수 일제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16일 “최근 어패류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수족관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오르는 8·9월에 집중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 상처가 바닷물에 닿으면 감염될 수 있으며 간 질환 등 기저질환자는 중증 진행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상반기에도 28개 업소 수족관수를 검사했으며 지난 4월부터 매주 7개 지점의 해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군도 검출되지 않아 강진 수산물 안전성이 입증됐다. 〈사진〉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은 현장 점검에서 수온 확인과 시료 채취를 진행했으며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위생 취급 예방수칙 교육도 병행했다.

군이 검출되거나 위생상 문제가 발견되면 수족관수 교체·소독 등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강진군보건소 관계자는 “명절과 축제를 맞아

강진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10월까지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이 해남군 우슬체육공원우슬체육관에서 하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해남서 하계훈련

20일까지 선수·지도자 등 55명 참여
郡, 선수단 타깃 스포츠마케팅 결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16일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해남 일원에서 하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펜싱협회가 주관하는 훈련에는 우수 선수 48명과 지도자 7명 등 총 55명이 참여했다.

선수들은 체력과 기술을 위한 종목별 집중 훈련을 소화하며 경기력 향상 담금질에 한창이다.

펜싱 선수단 유치는 해남군이 엘리트 우수 체육인들을 겨냥해 체육 시설과 훈련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온 맞춤형 스포츠 마케팅의 결과물이다.

군은 선수단이 2주간 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 체류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해 훌륭한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대표 등 경쟁력 있는 우수 선수단 중심의 전지훈련 유치에 힘을 쏟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